



윤명희 전남도의원·편집자문위원장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영주 에너지밸리연구소 이사장 김용집 광주시의원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형식 증권큐비클 대표 정준호 변호사

“심층·시리즈 보도...지면 차별화가 경쟁력”

2018 제3차 전남매일 편집자문위원회의

2018년 제3차 전남매일 편집자문위원회의가 4일 오전 본사 3층 사장실에서 열렸다. 김선남 본사 사장과 정정룡 편집국장, 윤명희 편집자문위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3차 편집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윤명희 위원장= 전남매일에서 CEO경제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었다. 80명 정도 모집해 1년 과정인데 광주전남의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이미 접수를 마쳤다. 편집자문위원들도 동참해 자주 얼굴을 뵈면 좋겠다.

▲김선남 사장= 아카데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경제아카데미는 처음이다. 품격 높은 경제아카데미를 꾸릴 생각이다. 도와주시면 최상의 멤버, 최상의 강사진으로 보답하겠다.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연말, 분주한 시간 시간 내주시는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남매일이 어려웠지만 좋은 오너를 만나 활기차고 최상위 복지혜택을 받으며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지면 차별화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

▲정정룡 편집국장= 국장을 맡은 후 첫 편집자문위원회의다. 위원 여러분이 활동하신 1년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1년의 결산, 신문의 발전 과정, 콘텐츠, 편집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과감없이 반영하겠다.

▲윤명희 위원장= 새로 취임하신 편집국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2018년 마지막 편집자문위원회의니 잘 마무리 해보자.

▲류한호 교수= 요즘 1면부터 신문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이템이 좋다. 예전에 비해 지면의 매력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선택되는 기사가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잘 선정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매일매일 느껴진다. 감각의 변화라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도 광주형 일자리, 실업급여, 광주 아파트 등 지역의 이슈(예전 자치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요즘은 경제에 관심을 기울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있게 천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지면은 기사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어졌다. 이는 기사의 심층성이 강화됐다는 의미

다. 전남매일이 지역에 갖고 있는 관심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리즈 기획물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어느 부분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기사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기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요즘 기사를 보는 방법이 주로 인터넷이다. 신문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 짧은 뉴스는 인터넷으로, 깊이 있게 보는 독자들은 신문을 본다. 독자들을 생각해 심층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신문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김영주 원장= 올해 경영진과 편집국장이 바뀌며 기본적인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진이 많아지고 커진 것 같다. 인터넷 독자를 감안하더라도 콘텐츠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다른 콘텐츠와 균형을 잡는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시각들이 많다. 언론에서의 시각은 기업, 경제에서의 시각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 생활,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아예 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물을 가져가 다른 신문과 차별화 하면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신문이 되지 않겠는가.

혁신도시가 구축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역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쉬움이 있다.

현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 중인데 지면이 허락한다면 공공



2018년 제3차 전남매일 편집자문위원회 회의가 4일 오전 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사장실에서 열렸다. /김태규 기자

지역이슈 심층적 접근 지면의 매력 살아나 바람직 사진·영상 젊은변화 신선...타신문과 차별화 공감 경제발전 대안 필요...평정심 가지고 기사 다뤄야

기관들을 돌아가며 접촉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다.

▲박형식 대표= 저는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지역의 알찬 법인,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들이 경제전문지로서 전남매일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무료 제공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준호 변호사= 1면의 매력에 동참한다. 사진이나 영상의 변화는 신문이 젊어진 느낌을 준다. 전남매일은 재도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젊은 느낌과 상당히 부합할 것 같다. 현장르포 기사가 다른 신문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기사는 신선하다. 찾아가는 취재를 강조한다라는

측면에 경제현장도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

▲김성호 사장= 비슷한 의견이다. 칼라화 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런 측면에서 사진의 양도 많아졌다. 흑백과 칼라의 구분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컸다. 아쉬움이려면 시민의 대다수가 지하철 건설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끌고오는 부분에서 일부 언론이 동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극소수 의견을 지속 보도함으로써 전체 의견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2호선 마무리 시점의 언론의 방향성을 고심하고 기사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신문의 차별화 전략으로 주요 이슈

의 심층, 시리즈 보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시리즈 보도는 광주가 갈등을 겪고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철도 관련해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판 전남매일 등은 보도에 있어 차별화가 느껴진다. 이슈에서 다른 시각으로 인터뷰를 실을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선거가 없는데 이제 포커스 자체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공공성 감질 쪽으로 돌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은 어떨까. 풍토를 바꿔 가는 언론의 역할을 주문한다.

▲김용집 시의원= 언론이 여론 전달과 수렴도 중요하지만 리더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나 광주형 일자리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명희 위원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교육은 하고 있는지. 현장의 사건을 기자들이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기사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기자교육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장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넘었다.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는가,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고장 사람들’이 두 개의 지면에 나오고 있는데 고장 사람들의 면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조잡하다는 느낌도 받는다. 각각의 색선에 정리정돈해 구분하는 것이 독자에게 더 와닿을 것 같다. /정리=이연수 기자 ▶동영상(홈페이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